

전시 즐기고 카메라 원리 배우고...사진의 매력에 빠지다

오상조 명예관장과 둘러본 화순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화순 운주사 입구에 설립...내일 정식 개관
2층 규모...전시·영상·수장고 등 갖춰
흑백필름 인화 암실·사진 출력실 눈길
도시설 사진서적 400여권 비치
20일~8월 31일 '오상조 기증전'



오상조 명예관장이 벚꽃을 배경으로 운주사 석탑을 찍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화순 운주사는 전남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잡은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은 사진을 보고 배우며 호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남의 중심에서 사진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8일 오전 방문한 화순 운주사 입구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하 사진문화관)은 정식 개관(20일)을 앞두고 주변 정비작업이 한창이었다. 사진문화관은 한옥 지붕과 돌담을 사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상조(광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 명예관장은 “전시 뿐 아니라 교육, 아카이브 등 사진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오 명예관장과 함께 둘러본 사진문화관은 큰 규모가 눈에 띄었다. 화순군은 예산 54억 원을 투입, 연면적 1523㎡ 지상 2층 건물을 지난 1월 완공했다. 1층은 카메라웍스큐라(빛을 차단한 공간 벽에 바늘구멍을 뚫어 밝은 바깥 풍경이 멧히게 하는 카메라 원리)체험실·전시실·영상실·수장고, 2층은 사진도서실·암실 및 사진출력실·휴게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5일 위촉된 오 관장은 광주대에 지역 최초 사진학과를 개설하고 한국사진학회장을 역임한 사진 전문가다. 화순군에 사진 110점, 카메라 30점, 사진도서 1000권, 필름 1000개를 기증하며 사진문화관 설립에 기여했다.

작은 영화관을 연상시키는 영상실은 대형 스크린과 35개 좌석을 설치해 사진 관련 교육, 영화 상영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상실을 나오면 포토존이다. 오 명예관장이 기증한 운주사 석불 사진을 가로 5m·세로 3m 크기로 확대 출력해 부착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운주사 현장에서 촬영한 느낌이 난다.

카메라웍스큐라실은 사진문화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원형 형태로 방을 만들고 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았다. 천장에 설치한 하얀 스크린에 바깥 풍경이 멧히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문을 닫아 빛을 차단한 후 조금 기다리자 눈이 어둠에 적응하며 조그금씩 스크린 안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원전 350년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카메라 원리를 방 전체를 통해 구현했다.

벽에는 다양한 카메라들이 전시돼 있다. 오 관장을 비롯해 사진 애호가들이 기증한 물건들이다.

2층에는 오 관장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암실·사진출력실이 있다. 다른 사진전 시공간과 가장 차별화된 공간으로, 디지털 사진 프린터를 비롯해 아날로그 흑백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빛을 차단하는 화전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자 빨간 조명 밑으로 필름 확대 인화기, 현상액을 담아두는 수조 등이 보였다.

오 관장은 “서울 등 전국을 수소문해 흑백 필름 인화장비를 찾았다”며 “오페수 처리기, 대형 환풍기 등 흑백사진 인화시설로는 가장 최신식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진아카데미 수강생 등 방문객들이 찍은 사진을 직접 인화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조 도시실도 마련했다. 기증받은 각종 희귀 사진서적 400여권을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전시실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오상조 기증 사진전’을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연다. 오 관



화순군 도암면 운주사 입구에 자리한 ‘천불천탑 사진문화관’과 흑백사진 인화실(아래).

장이 1984년부터 운주사를 찾아 찍은 석불석탑 작품 60여점을 전시한다. 높이 3m 크기로 확대해 미처 몰랐던 천불천탑의 매력을 알려 주거나 1980년대 인화한 사진을 출력해 흑백 사진의 정취를 선보인다.

활용해 영상과 사진, 음악이 함께 하는 문화 행사를 열 예정이다”며 “옛 사진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 사진애호가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문의 061-375-7053.

오 관장은 “앞으로 사진문화관 앞 공간을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인도’ 방탄유리속 작가 이름 없이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27년만에 공개

수십 년간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천경자의 ‘미인도’가 18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0년 마지막 전시 이후 27년, 1991년 천 화백이 위작 주장을 제기한 지 26년 만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날 과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일 개막하는 소장품전 ‘균열’에 출품된 작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인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미술관은 진위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작가 등 아무런 설명 없이 방탄유리속에 그림만 내걸었다. 진위 논란 관련 자료를 함께 소개하는 ‘아카이브’전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위작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술관이 그림 공개를 결정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지만 유



작들은 이에 맞서 항고한 상태다. 일반 관객들은 19일부터 미인도를 볼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광주화루’ 작가상 유근택 교수

공모전 대상 이호익 작가...우수상 장예슬·하성흠씨

광주은행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광주화루’ 작가상(상금 5000만원)에 유근택(52) 성신여대 교수가, 공모전 대상(상금 3000만원)에 이호익(32)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은행은 18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선정작가를 발표했다. 광주은행측은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작가상 초대 수상자로 유 교수를 선정했다. 유 교수는 오는 9월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해외 레지던시 참여 시 추가로 1000만원 이내 경비를 지원받는다.

유씨는 홍익대 동양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남미술상(2000),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3), 하종현 미술상(2009) 등을 수상했다. 1991년 서울 관훈미술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한국화 전시를 열었다.

공모전 대상을 받은 이 작가는 중앙대 한국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01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불안’, ‘한국화의 유혹’ 등 다수 개인·단체전에 참여했다.

우수상(상금 1000만원)에는 광주 지역 출신인 장예슬(여·29)·하성흠(55)씨가 나란히 선정됐다. 청강문화산업대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씨는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하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3회, ‘김광석 20주기 추모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오는 23일까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10인의 작가전’을 열고 있다. 10인의 작가는 수상자를 비롯해 구본아·김일·박경묵·이지연·이재영·이태랑·하용주 등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제1회 광주화루’ 수상자들. 왼쪽부터 김한 광주은행장, 공모전 우수상 장예슬·하성흠, 대상 이호익, 작가상 유근택, 김상철 심사위원. <광주은행 제공>
▲대상 작 ‘시간과 움직이는 것과 살아있는 것’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